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한국과 유사한 인구·사회구조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미래 사회보장의 전망 보고서 작성에 참고

-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 협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방문
- 일을 대체하는 자기 실현, 일자리 중심의 고용 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 자기실현의 단위로 전환되는 사례 확인

□ 과제명

[수탁26-078-00]국가미래전략연구:사회문화(718계좌)

□ 출장기간

2026.10.19.(월) ~ 2026.10.22.(목)

□ 출장국가(도시)

일본(동경)

□ 출장자

정해식 연구위원, 안수란 연구위원, 함선유 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10.19(월)	대한민국 (김포/청주)	공항 이동(출국)	-	-
10.19(월)	일본(도쿄)	워커즈 콜렉티브 네트워크 재팬(WNJ)	藤井恵里(에리 후지이) 대표, 井上浩子(이노우에 히로코) 부대표, 瀬戸久子(히사코 세토) 부대표,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 사무국장, 風間由加(카자마 유카) 사무차장,	- 워커즈 콜렉티브 네트워크 재팬 발표 청취 및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의응답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이해린 릿쿄대 강사, 강수향(통역)	
10.20(화)	일본(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시)	히가시무라야마 일대 현장 방문 ① NPO 법인 히가시무라야마 어빌리티클럽 타스케아이(ACT)	橋本(하시모토),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안내), 강수향(통역)	- 방문개호 서비스, 데이케어 서비스 현장 방문 (ACT 자립원조 서비스, 개호보험 서비스, 장애복지 서비스) 및 담당자 인터뷰
		히가시무라야마 일대 현장 방문 ② 워커즈 콜렉티브 수윤탄 찻집 그레인	和田安希(와다 아키요) 이사장,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안내) 강수향(통역)	- 카페 및 빵 판매, 함께 일하는 사업, 점심 도시락 배송 사업 - 지역협의회 소개 및 점심 식사
		히가시무라야마 일대 현장 방문 ③ 場所(이바쇼)	香丸眞理子(코마루 마리코),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안내), 강수향(통역)	- 상담 파트너 사업, 공간(스페이스) 사업, 홋토 서비스(안심돌봄) 사업 - 점심 서비스('마을의 툇마루') - 위탁사업(원내 동행 사업 등)
		히가시무라야마 일대 현장 방문 ④ NPO 법인 ACT 다마키타 거택개호지원사업소・사람과 마을 만들기	(香丸眞理子(코마루 마리코),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안내), 강수향(통역)	- 거택개호(재가방문돌봄) 지원사업 - 마을만들기 사업
		히가시무라야마 일대 현장 방문 ⑤ 노동자협동조합 워커즈 콜렉티브 린(凛) 생활클럽생협 매장/ 수윤탄(スーユンタン) 함께 일하는 사업소	香丸眞理子(코마루 마리코), 千葉裕子(치바 유코) 대표이사,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안내), 강수향(통역)	- 생활클럽생협 매장 수탁사업 - 수윤탄: 자원회수・도서 인터넷 판매 등, 찻집 그레인 운영, 가사 지원
10.21(수)	일본(사이타마현 코노스시)	노동자협동조합 코사텐 커뮤니티 카페 코사텐(幸茶店)	打越紀子(우치코시 노리코) 대표이사, (동행)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 강수향(통역)	- 노동자협동조합 코사텐 시찰 및 간담회
	일본(도쿄)	도쿄도 신주쿠구 회의공간	유야마 아쓰시 강수향	- 사회복지법인의 지역사회 공헌과 복지마을 만들기 실천(야마구치 현립대학)
10.22(목)	일본(도쿄)	공항 이동(입국)	-	-

2 출장 주요내용

①	워커즈 콜렉티브 네트워크 재팬 방문 및 논의
일 시	10.19(월) 14:00~18:00
장 소	도쿄도 세타가야구 생활클럽 아카츠츠미관 지하 1층 회의실
참석자	藤井恵里(에리 후지이) 대표, 井上浩子(이노우에 히로코) 부대표, 瀬戸久子(히사코 세토) 부대표,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 사무국장, 風間由加(카자마 유카) 사무차장, 이해린 릿쿄대 강사, 정해식 연구위원(KIHASA), 안수란 연구위원(KIHASA), 함선유 연구위원(KIHASA),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강수향(도쿄대학교, 통역)

가. 기관 개요

○ 워커즈 콜렉티브(W.Co): 일하는 사람이 출자・경영・노동을 모두 맡는 비영리 시민사업 조직
- 고용하거나 고용되는 관계가 없음, 1인 1표
- W.Co 자체는 법인이 아니며, 단체별로 NPO법인・기업조합・노동자협동조합 등 법인격 선택

○ 기원: 1982년 생활클럽 가나가와 제1호 「W.Co 닌진」 설립(44년째)
- 모체는 생활클럽의 예약 공동구매 운동
- 조합원 활동이 대리인 운동(지방의원)과 비영리 시민사업(W.Co) 두 갈래로 발전

○ 현황(2026.3.31 기준): 약 300개 단체, 6,400명, 총사업액 약 116억 엔
- 업종별(중복 포함 353): 고령자복지 85, 생협 사업 수탁 67, 식 관련 61, 육아지원 54, 환경・문화 등 34, 이바쇼 27, 이동서비스 23, 배달 2
- 돌봄 영역(고령・육아・이바쇼・이동)이 189개로 절반 이상
- 구성원 약 90%가 여성, 대도시 집중

○ 노동자협동조합법: 2020.12 참의원 만장일치 성립, 2022.10.1 시행
- W.Co의 근거법은 아니나 법의 목적이 W.Co의 지향과 일치한다고 평가
- 법상 일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음

나. 사전질문 서면답변 요지

○ 공감 형성: 월 1회 전원 참여 정례회를 가장 중시함. 다만 생협 비조합원 구성원이 절반에 이르며 공감 형성이 어려워짐
- 제도화 영향: 2000년 개호보험 편입 후 경영은 안정됨
- 반면 보고・자격・연수 요건 증가, 개호보수 정체로 인력부족 만성화
- “제도의 논리”가 지역 감각을 압도한다는 자기평가

○ 비도시 지역: 과소지 사례는 거의 없음. 가나가와 이동서비스가 ‘복지유상운송’ 제도화를 이끌었으나 공적 재원은 거의 없음

○ 청년 참여: 학교 교육에 협동조합 내용이 거의 없음. 이바쇼 같은 쉬운 입구와 투잡 수요 포착을 대안으로 제시

○ 노동과 자원봉사의 경계: 개호보험 업무는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임. 자비 상호부조 서비스・살롱은 저가・자기부담으로 유지되며 자원봉사로 인식

○ 신규사업: 개인 문제의식 → 정례회 안건 → 이사회 승인의 경로

다. 현장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디센트 워크: 급여는 높지 않음. 대신 명령받지 않고 일하는 방식을 함께 정하는 점을 핵심으로 봄

○ 주체성: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형성됨(발표자 본인도 27년 활동, 처음엔 주체적이지 않았다고 함)

○ 여성 편중: 가정 내 개호・육아 해결 동기가 성별분업 문제제기와 결합해 출발함

○ 신규사업 안착: 문제의식을 가진 최소 3인 + 일할 사람・응원할 사람을 모아 준비

○ 시장・국가와의 관계

- 시장과 완전히 겹치나 수익보다 지역에 필요한 일을 중시(이동서비스 저가 제공)
- '선 실천, 후 제도화' : 이동서비스가 먼저 실태를 만든 뒤 행정을 설득해 공적 제도화

○ 세대 계승: 신규 구성원은 지시를 기다리는 고용노동식 사고에 익숙해 교육이 더 중요해짐

○ 마무리 발언

- 나가노 참석자: 과소지일수록 주체성과 지자체 단위가 중요. 내년 전국대회 나가노 개최 예정
- 한일 협동조합 연구자: 한국은 제도 기반・규모가 강점, 일본은 지역 실천・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강점

②	히가시무라야마시 ACT 방문 및 면담
일 시	10.20(화) 10:10~10:30
장 소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시 NPO 법인 히가시무라야마 어빌리티클럽 타스케아이(ACT)
참석자	橋本(하시모토), [안내]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 [통역] 강수향(도쿄대) 정해식 연구위원(KIHASA), 안수란 연구위원(KIHASA), 함선유 연구위원(KIHASA),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고령자 데이서비스・방문개호 사업소(W.Co, 오전)

○ 1층 지역밀착형 데이서비스 + 위층 방문개호(헬퍼 스테이션) 병행 운영

○ 이용자: 최대 30명, 주로 요개호 1・2급, 사별 독거 여성 다수. 개호보험 적용, 자기부담 대부분 10%

○ 인력: 헬퍼 포함 27명 중 상근 3명, 나머지 비상근. 30대 없음, 자원봉사자 2~3명

○ 헬퍼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수요가 있어도 보낼 사람이 없음)

○ '130만 엔의 벽' : 연소득 130만 엔 초과 시 사회보험 가입 의무 → 근무시간 조정

-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벽은 그대로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듦

○ 관리자: 생활클럽 배송 10년 후 이직해 20년째 근무. "내가 늙어서 이용하고 싶은 곳"을 동기로 꼽음

○ 저보수・운영비 부족: 시설 20년 노후화(긴급한 경우에 한해 수선 중), 차량 타이어 교체도 미루는 상황 -> 시설 운영비 지원 등 필요

③	히가시무라야마시 워커즈 콜렉티브 수윤탄 찻집 그레인
일 시	10.20(화) 10:45~13:15
장 소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시 워커즈 콜렉티브 스윤탄 찻집 그레인
참석자	和田安希代(와다 아키요) 이사장, [안내]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 [통역] 강수향(도쿄대) 정해식 연구위원(KIHASA), 안수란 연구위원(KIHASA), 함선유 연구위원(KIHASA),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가. 그레인 깃사텐・스윤탄(오전~점심)

○ 히가시무라야마 운동의 계보
- 1980년 ICA 레이들로 보고서(생산적 노동을 위한 협동조합,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W.Co 운동・지역협의회로 구현
- 1991년 생활자 네트워크로 정치 활동 시작. 의원을 '대리인'으로 부르며 임기 최대 3기(12년)로 제한
- 1993년 「포켓」 설립: 개호보험(2000)보다 7년 앞선 돌봄 사업장, 오전 방문 데이서비스의 모체

○ 그레인 깃사텐(2026.6 재개장): 30년 운영한 빵집 「그레인」이 멤버 고령화로 폐업하자 스윤탄이 인수
- 재원: 출자・생활클럽 조성금(300만 엔)・기부・대출

○ 스윤탄(2009~): "장애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 봉제로 시작 → 고정비 부담으로 생활클럽 비누 청소 수탁 → 청소・자원회수・헌책 판매 등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 장애연금・노령연금 수급자, 패닉장애 청년, 워킹푸어 청년 등이 단시간 근무
- 창립 배경: 지적장애 자녀를 둔 창립자, 이탈리아 B형 사회적협동조합・일본 공동련 견학

○ 최저임금 미달: "3년 안에 맞추자"는 계획에도 현재 최저임금을 주지 못함. 최저임금을 못 주면 청년이 오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 청년 유입 장벽: 관심사 차이보다 "돈이 되지 않음"이라는 경제적 진입장벽

나. 사포스케(생활지원 서비스, 2024~)

○ 생활클럽 도쿄가 창구・결제를 맡고 스유탄이 현장 수행하는 공동사업

○ 친환경 청소・풀 뽑기 등 소소한 가사지원. 스태프 2인 1시간 7,150엔(1인당 약 3,575엔)

○ 3개 권역, 조합원 약 5,000명 대상. 80대 이용자 다수

다. 히가시무라야마 지역협의회 장기계획(시민판 지역복지계획)

○ 음식・교육・환경・주거 4개 영역, 1기(2019~2023)・2기(2024~2026)

○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생협 조합원이 자체 수립, 구성단체 갹출로 운영

○ 사무국 기능 2개: 지역협의회(계획 추진), 생활 종합상담(신설 코디네이트 워커즈)

④	히가시무라야마시 워커즈 콜렉티브 이바쇼
일 시	10.20(화) 13:30~14:00
장 소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 워커즈 콜렉티브 이바쇼
참석자	香丸眞理子(코마루 마리코), [안내]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 [통역] 강수향(도쿄대) 정해식 연구위원(KIHASA), 안수란 연구위원(KIHASA), 함선유 연구위원(KIHASA),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이바쇼 「마을의 연(縁)」 방문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1년 개소, 주 4일 운영. 런치(800엔), 리사이클숍, 아동 도시락(18세 이하 무료), 노을 식당
○ 「훙토 서비스」(간단 생활지원): 1시간 1,200엔 중 800엔 서포터, 400엔 운영비
○ 정식 멤버는 10명 → 4명으로 감소, 책임 없이 돕는 서포터는 증가
○ 다스케아이 워커즈에서 '졸업'한 고령자가 오는 노동 생애주기의 '내려오는' 경로
○ 재정: 월세 15년간 약 2만 엔 유지(집주인 협조), 인건비는 매우 낮음. 시 보조금 신청 준비 중
○ 이바쇼 운영 이유: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비공식 자원을 전제하지만 실제로 맡을 사람이 없음
→ 비공식 활동에 공적 자금 투입 요구

⑤	히가시무라야마시 ACT 다마키타 거택개호지원사업소
일 시	10.20(화) 14:45~15:00
장 소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시 거택개호지원사업소
참석자	香丸眞理子(코마루 마리코), [안내]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 [통역] 강수향(도쿄대) 정해식 연구위원(KIHASA), 안수란 연구위원(KIHASA), 함선유 연구위원(KIHASA),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독립형 거택개호지원사업소(케어매니저) 방문 및 면담

○ 2000년 개호보험 시행과 함께 개소. 케어매니저 5명 + 사무 1명
○ 2025.8.1 NPO법인 → 노동자협동조합 전환(사업은 그대로)
○ 독립형 고수 이유: 이용자・가족의 자기결정 보장. 독립형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
○ 근무: 주 40시간 상근・32시간 상근・24시간 비상근 중 선택, 정년 70세(최고령 79세). 인력은 헬로워크로 일반 채용
○ 업무량: 1인당 39건 담당. 정부는 ICT로 50건까지 늘리려 함
○ 보수: 기본보수는 동결된 채 '가산'만 반복 → 후생노동성에 기본보수 인상 직접 요청, 업무시간 실태조사 준비 중

⑥	히가시무라야마시 워커즈 콜렉티브 린(凛) 생활클럽생협 매장/ 스윤탄 작업장
일 시	10.20(화) 15:00~16:00
장 소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시 생협(클럽 데포 히가시무라야마), 스윤탄 방문
참석자	香丸眞理子(코마루 마리코), [안내]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 [통역] 강수향(도쿄대) 정해식 연구위원(KIHASA), 안수란 연구위원(KIHASA), 함선유 연구위원(KIHASA),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가. 워커즈 콜렉티브 생협, 스윤탄 현장 방문
○ 클럽 데포는 조합원을 모으고 연결하기 위한 장소(사람・물건・정보가 오가는 장소)
○ 2022년 시행된 노동자협동조합법에 따라 법인격 취득한 워커즈 콜렉티브
- 시급은 도쿄도 최저임금에 준하고, 하루 4~8시간 근무를 협의하여 조정
○ 배송업무 진행, 비누를 사용한 청소 업무 수행 등

나. 질의 응답-마을 만들기 사업
○ 히가시무라야마 지역협의회 활동을 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수행
- 보도가 좁은 곳, 그린 버스 운행 늘려주세요, 벤치를 늘려주세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개입하고 지역협의회 장기 계획을 수립, 수행하면서 더디지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

⑦	고노스시 커뮤니티 카페 코사텐
일 시	10.21(수) 10:00~13:00
장 소	사이타마현 고노스시 노동자협동조합 커뮤니티 카페 코사텐
참석자	打越紀子(우치코시 노리코) 대표이사 [안내] 小柳智恵(토모에 코야나기), [통역] 강수향(도쿄대), 정해식 연구위원(KIHASA), 안수란 연구위원(KIHASA), 함선유 연구위원(KIHASA)

가. 기관 개요

○ 2011.5.16 개점. 이름은 幸(행복)・茶(차)・店(가게) + ‘사람이 오가는 교차점(交差点)’
○ 출발점: 생활클럽생협 후키아게지부 ‘클럽룸’(생협이 임대료 등 부담) → 비조합원 주민에게 연 ‘히로바문고’ → 커뮤니티카페 운동
○ 설립 멤버 약 10명(W.Co 경험자, NPO 설립 경험자, 세무・회계 경험자 등). ‘무엇을 할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할지’를 먼저 오래 논의
○ 2023.7 장애복지 사무소 2층 이전, 1층 커뮤니티숍 ‘구루구루’ 개점
○ 2024.11 NPO →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3년 유예기간 내 전환이 쉽다는 이유. NPO는 기부 모금, 노협은 출자 기반이라는 차이. 현재 조합원 35~36명

나. 이념과 재정

○ 이념 피라미드(사명→비전→가치→행동원칙): ‘민간 안전망’, 누구에게나 열린 곳, 일할 곳・일할 기회 제공
○ 자금: 대표가 점포 매입・개보수, 고사텐・생협이 대표에게 임대료 지급
- 초기 출자 1인당 5만 엔
- 이사・회원 대상 ‘고사텐채(債)’ 차입. 설립 차입금은 상환, 현재 약 700만 엔
○ 수익: 2010년 수십만 엔 → 2024년 약 2,300만 엔(그래프 판독 추정)
- 2018년 이후 장애복지서비스가 급증해 2024년 약 1,500만 엔, 전체의 약 3분의 2
- 음식사업은 300만 엔대에서 정체. 좋은 재료비・입지 판단 문제로 어려웠다고 함

다. 사업 방식

○ ‘경험에서 일 만들기’: 생협 조리 → 음식점, 문고 → 육아지원, 뜨개 강사 → 니트카페, 사협 송영봉사 → 이동서비스, 경험 없음 → 할 수 있는 만큼
- 송영(이동지원) 수요가 가장 많음. 병원 이동 등 생활서포트가 안정적 수입원이 됨
○ 제도 밖 틈새 메우기: 개호보험 헬퍼가 못 하는 창문 닦기・풀 뽑기・빈집 관리
- 요금: 빈집 살피기 1회 약 1,000엔, 실외작업 1인 1시간 3,000엔, 실내작업 2,400엔 → 지급 시급의 약 2배
- 동네 약 1,000세대 중 10% 이상이 빈집(상속자 원거리 거주)

○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 업무를 잘게 나눠(切り出し)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줌
  - 생활곤궁자에게 45분 정도 일을 맡기고 점심을 제공
○ 지역 연계: 사회복지협의회(생활곤궁 상담), 시청, 지역포괄지원센터, 장애복지 상담사업소, 주임아동위원, 어린이식당 네트워크
○ 사회 변화 인식: 30년 전 활동적 주부층・자원봉사 조직 → 현재 대부분 소멸 → 앞으로 ‘사회의 담당자 부족’. ‘가까이 사는 모르는 이웃’이 도울 것을 강조

라.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임금: 시급 1,200엔(2026.10~), 헬퍼 자격 +100엔, 송영 +40엔
  - 장애복지 처우개선가산은 헬퍼 업무자끼리만 배분
  - 생활서포트・지역복지를 함께 하면서 최저임금 지급 가능 수준에 도달
○ 장애복지 진출 동기: 중증장애 자녀를 둔 조합원이 있어 그룹홈을 만들고 싶었음
  - 현이 ‘장애복지 경험 없는 단체는 불가’ → 2018년 장애복지서비스로 경험 축적 → 2029년 그룹홈 개설 목표
○ 은둔형 외톨이: 어머니 모임을 열었으나 일로 이어지지는 못함. 얼굴을 아는 관계로 지켜보는 수준
○ 아동 활동: 공립 학동보육이 생기면서 아동 행사는 줄어듦
○ 노후 주거: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살 곳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

⑧	일본 사회복지 법인의 지역만들기 실천 관련 논의
일 시	10.21(수) 15:00~18:00
장 소	도쿄도 신주쿠구 회의공간
참석자	유야마 아쓰시(야마구치현립대학), [통역] 강수향(도쿄대), 정해식 연구위원(KIHASA), 안수란 연구위원(KIHASA), 함선유 연구위원(KIHASA)

<사회복지법인의 지역사회 공헌과 복지마을 만들기 실천>

가. 배경

○ 2016년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지역 공익활동’ 책무가 명문화됨
○ 제도에 따른 사업 수행을 넘어, 법인 고유 자원(시설・전문인력)으로 지역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
○ 전국사회복지법인경영자협의회 사례 웹사이트 「미래로 이어가는 사람, 지역, 삶」의 사례 6건을 소개

나. 주요 사례

○ 고지카라 마을: 아이치 다이요노모리(아이치현 나가쿠테시)
  - 약 1만 평 잡목림에 특별양호노인홈・유치원・주간보호를 울타리 없이 배치. 노년층 유급 자원봉사(’기네즈카 셰어링’), 주간보호 이용자가 직원으로 참여하는 카페

○ 달팽이의 집 오카노우에 복지회(히로시마현):보육원 부지 안 그림책 도서관(2021년, 약 3,000권).
- 보육교사가 양육상담을 하고 지역 노인이 읽어주기에 참여
○ 모두의 식당 오이데에루: 千年会(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 현 공모 실증사업. 공동식사와 식생활 교육, 이용 노인과 주민이 준비 과정에 자원봉사로 참여
○ 함께 만드는 연극: 미야자키 병원(미야자키현)
- 환자, 의료・복지 직원, 주민, 극단이 연극을 공동 제작
○ 양육 지원망: 히로시마현 사회복지법 인 창화복지회
- 찾아가는 보육, 노년층 양육지원 인력 양성, 민생위원과 연계한 돌봄 네트워크
○ 상담 거점: 아이치 다이요노모리 무사시노 료엔
- 상설 카페・거점과 마을 축제 운영. 노인과 주민이 운영을 맡음

다. 성공 요인과 과제

○ 성공 요인: 법인 자원(전문인력・공간・신뢰) 개방, 그림책・음식・연극・카페처럼 문턱 낮은 입구, 이용자가 직원・봉사자가 되는 역할 역전, 주민이 주도할 여지 확보
○ 과제: 인력 부족 속 지역공헌 비용 확보, 자원봉사자 고령화
- 대응: 중층적 지원체계 정비사업과 지자체 보조금 활용, 법인 연합 공동사업, 유급 자원봉사・시간제 채용

라. 시사점

○ '지원 대상에서 지원 주체로'의 전환은 W.Co 사례와 같음. 다만 주체가 아래로부터 생긴 협동조합이 아니라 제도권 공급자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이 다름. 한국 사회복지법인・복지관의 지역 개방 모델로 검토할 수 있음
○ 노년층 참여를 '유급 자원봉사'로 확보하는 방식은 W.Co 현장에서 확인한 저보수 문제와 같은 긴장을 안고 있음

3 출장 증빙 회의 현장 사진, 면담자 명함 등

①	도쿄도 세타가야구 생활클럽 방문 강의





②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 타스케아이 워커즈 방문



③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 워커즈 콜렉티브 수윤탄 찻집 그레인 방문




④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 워커즈 콜렉티브 이바쇼 방문, 생협 데포 방문




⑤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 생협, 스윤탄 방문




⑥	사이타마현 고노스시 노동자협동조합 커뮤니티 카페 코사텐 방문





⑦	현장 팜플렛, 면담자 명함



(찻집 그레인)



(클럽 데포 홍보물)

